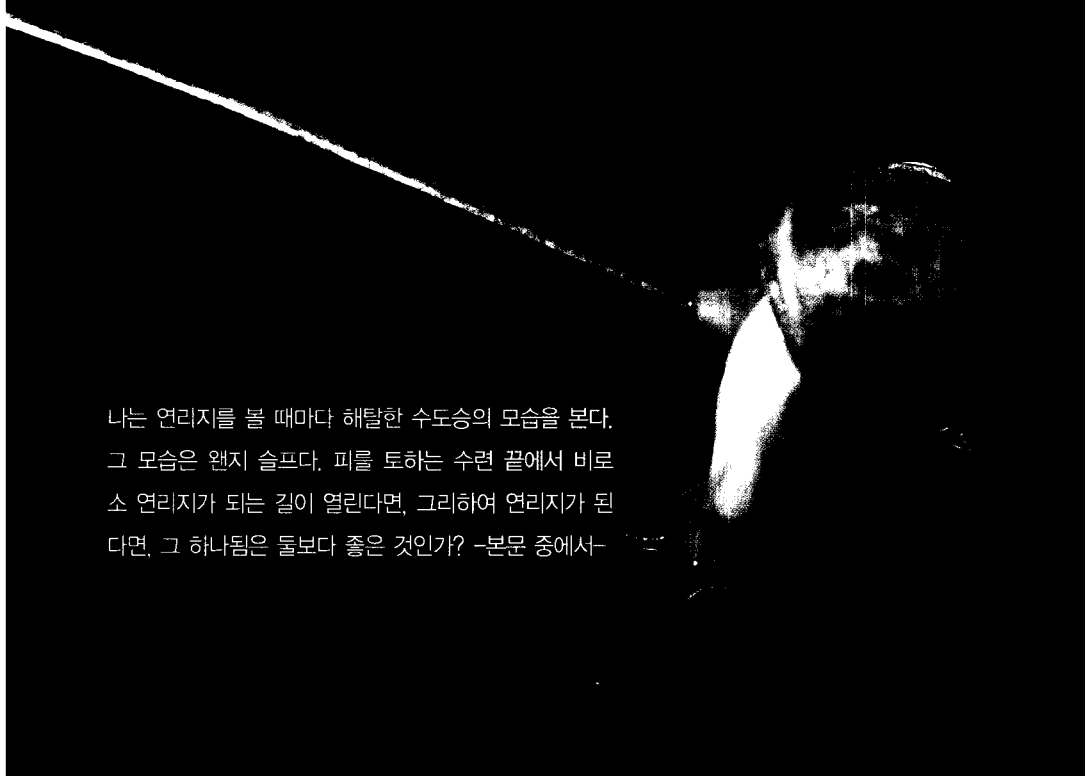


느 리 게
살 기



나는 연리지를 볼 때마다 해탈한 수도승의 모습을 본다.
그 모습은 왠지 슬프다. 피를 토하는 수련 끝에서 비로
소 연리지가 되는 길이 열린다면, 그리하여 연리지가 된
다면, 그 하나됨은 둘보다 좋은 것인가? -본문 중에서-

연리지(連理枝)가 되려는가?

글_유승도(시인)

눈을 떠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다. 아침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시니 12시도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겐 점심 무렵이 내겐 아침이다.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드는 4월부터는 약간의 제약이 따르지만 지급자족적인 소규모 농사를 유지하고 있어 내 생활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후에만 부지런히 움직여도 그럭저럭 농사는 무리가 없다. 모종을 기르거나 아침 일찍 할 일은 아침잠이 없는 아내가 맡아서 하니 내가 굳이 일찍 일어나야 할 일도 많지는 않다. 농번기건 농한기건 상관없이 나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

그런 나에게도 물론 예외는 있다. 5월초부터 한 달 남짓 이어지는 분봉기간에는 나도 8시쯤 이불을 걷는다. 빠르면 9시 전후에 분봉하는 벌들도 있고 늦으면 오후 4시쯤에도 분봉하는 벌들이 있다. 이곳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엔 첫 벌은 10시, 두 번째 벌은 12시, 세 번째 네 번째 벌은 오후 2시에 나왔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요즘은 아무 때나 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니 아무래도 세상이 이상해졌거나 말세가 다가왔거나, 아무튼 도통 이상하다고 한다. 마을 노인네들의 얘기는 지금의 세상 흐름을 욱하는 것으로 들리지만 조금 빼박한 시선으로 본다면 내 게으름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들린다(능구렁이들인 시골 노인네들의 얘기는 잘 새겨들어야

한다). 촌에 정착한 뒤 몇 년 동안은 그런 말에도 꽤 신경이 쓰이곤 했으나 요즘은 그렇거나 말거나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노인들을 대할 때도 내 얘길 끝이 곧대로 하곤 한다.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생각이 다르다 하여 다툴 마음도 없다. 말로 이해시킬 것이 있지도 않으려니와 그렇다고 다툰다 하여 얻을 것도 없다. 자신의 생활방식과 관념을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폭력을 느끼듯이 내 삶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려하는 것도 그것을 원치않는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폭력이 된다.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다가온다고는 하나 이곳은 아직 겨울이다. 남향인 이곳에도 띄엄띄엄 허연 눈이 덮여 있어서인지 북향인 앞산은 허연 모습이 변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젠 봄소식이 올 때도 됐는데…”

집 앞 숲가의 벌통이 있는 곳으로 발을 옮겼다. 양지바른 양봉장에는 다행히 눈이 다 녹아서 마른 앞들이 깔린 지난 늦가을의 풍경을 드러냈다. 그러나 벌들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올해는 아무래도 벌들의 상태가 심상찮다. 며칠전, 따듯했던 날에 둘러보니 벌들이 드나들며 ‘잉잉’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벌통은 세 통에 지나지 않았다. 스무 통 남짓 되는 양봉장에 벌이 살아남은 통이 세 통에 불과하다니… 지난 해의 유난히 길었던 우기 탓이다. 제대로 꿀을 모았다고 여겨지는 벌통이 아예 없사피 보였다. 봉군의 세력이 약했던 대여섯 개의 벌통 속 벌들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 있던 꿀을 다 소비하고 전멸했다. ‘설탕물을 넣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 나름의 원칙을 깨기가 싫었다. 옛날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인위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벌들의 월동식량 중 일부를 채취하는 방법을 택해 10년째 이어온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 설마하니 대여섯 통은 남겠지, 그러면 봄에 분봉을 받아서 열 통은 넘어설 거고…”

그런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세 통만 살아남는다 해도 뭐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분봉을 잘 받으면 한 통에서 서너 통은 받을 수 있으니 어찌어찌 열 통 정도는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끼 끼 끼 까..”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데 숲의 어디선가 나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듣지 않았으면 싶은 소리였다.

‘연리지라 했던가?’ 소름이 돋을 것만 같은 소리가 나는 곳을 주시하다가 전에 보지 못했던 두 가지의 접점을 발견하곤 가만히 바라보았다. 소리가 나던 곳 같지가 않았다. 소리의 크기에 비해 두 가지의 굵기가 너무 가늘프게 보였다. 거기서 그 거친 소리가 빠져나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두 가지는 이미 남녀의 포옹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서로 맞닿아 껍질이 벗겨진 부분을 감싸서 덮으려는 듯 윗가지의 상처부분이 도톰하게 부풀었다. 한 몸이라고 하기에 한 몸이 아니라고 하기에 어려운 형태였다. 기어이 한 몸이 되려고 하는가? 기어이 한 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왜 한 몸이 되려 하는가? 그냥 두 나무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꼭 한 몸이 되어 하는가?

쉽없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에 내 마음속 의문도 흔들리며 이어졌다.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 따로 살면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긴, 하나가 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살을 파고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하나 되는 일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연리지를 볼 때마다 해탈한 수도승의 모습을 본다. 그 모습은 왠지 슬프다. 피를 토하는 수련 끝에서 비로소 연리지가 되는 길이 열린다면, 그리하여 연리지가 된다면, 그 하나됨은 둘보다 좋은 것인가?

“애애애애..”

내 이어지는 생각을 끊으며 문득 애기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 벌통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다. 그새 언제 나왔는지, 날아다니던 검은 벌 한 마리가 벌통문 앞 발판에 내려앉더니 지체없이 쑥 벌통 속으로 들어간다. 거울에 듣는 벌의 날개소리는 날카로우면서도 힘차다.

그래 올 봄엔 나도 두 팔을 좀 저어봐야겠다. 모르는 일이다. 나도 저 하늘을 날게 될지도... 나는 그 무엇과 하나가 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고 싶다. 하나가 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내 삶에 대해 불현듯 감사한 마음이 인다. †

